



불서광장

목탁치고 염불하는데도 ‘道’가 있다

조계종어산장 동주 스님 ‘승가의범’ 펴내... 78년 만에 불교의식 집대성



슬픈 나라 슬픈 이야기 | 우부규 지음 | 북북 펴냄 | 1만원
2008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보여준 ‘다양한 실망’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 책은 바로 그 실망들의 실체를 이야기 하며 실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추구하는 너구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 속의 너구리가 누구인지 오소리가 무엇인지 우화된 아이러니를 쫓겨 읽다보면 웃지도 울지도 못할 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한숨’을 쉬게 된다. 그러나 슬픈 나라에도 기쁨을 갈구하는 염원은 있다.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 | 정천구 지음 | 작가세계 펴냄 | 1만2000원
“마음에 그려 넣지 말고 상을 짓지 말라. 공리 끝에는 악심밖에 나올 것이 없다.” 저자가 백성욱 박사에게 들은 법문이다. <금강경> 독송 운동을 이끌었던 백성욱 박사는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 동국대 총장 등 사회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저자는 백성욱 박사에게서 받은 크고 진중한 감화를 전해준다. 이야기들은 <금강경> 독송이 왜 중요하고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지 비밀스런 결말을 보여준다.



보살이야기 | 선일 스님 지음 | 더북스 펴냄 | 9000원
‘알고 서원하면 더 밝은 곳으로 인도 하시는 스물 한 분의 보살 이야기’ 책의 제목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불자들이 알고 있는 보살은 관음 지장 문수 보현 등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보살은 21분이나 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살이 ‘몇 명이다’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겠지만,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보살 21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한 책은 그간 없었다. 보살의 의미에서 우리나라 유명 ‘보살님 도량’ 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 정선 스님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9800원
‘미소 스님’ ‘라디오 스타 스님’ 등의 별칭을 얻고 맛깔스럽고 깊은 사색을 유도하는 짧은 글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선스님의 에세이다. 역시 글은 짧고 의미는 깊다. 삼천년이란 의미에 사람의 만남이 갖는 희귀성을 녹였다. 오늘 만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는 인과의 질서는 합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뜨겁한 충고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며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성스러운 이야기들이 봄나물 같이 입맛을 돋운다.



정직 | 어린이를 위한 정직 | 우부규 글 · 이윤선 그림 | 위즈덤하우스 펴냄 | 9000원
어린이 자기계발 동화 시리즈다. 정직하게 살자는 다짐은 아이들 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만 정직을 강요한다. 아이들은 그대로 정직인데 말이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애써서 만들어지는 정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이야기를 속에서 정직한 감동을 끌어 올린다. 주인공 선우의 눈에 비치는 것들, 일상에서 부닥치는 시건들 어느것 하나 정직하지 않은 것이 없다.



티끌세상의 소리 | 청란 지음 | 이해은 옮김 | 에버리치출판 펴냄 | 1만3000원
저자는 중국의 극작가이자 영화 제작자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육신의 유행성과 영혼의 무한성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해 활발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가 10년 동안 체험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산문으로 썼다. ‘제3회 범심문학상’을 수상해 더 유명세를 얻게 됐다. 집착 고통 사랑 등을 주제로 한 그의 글은 철저한 체험과 무한한 관조에서 나온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의식(儀式)이 없는 종교가 가능할까? 불교는 형상과 형식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는 종교라지만 알고 보면 의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다.
현대 한국불교에서도 의식은 절대적이다. 의식을 통해 가르침과 수행이 전승되어 왔으므로 교리가 파라면 의식은 빠라고 말할 만하다. 조석예불에서 각종 재일불공은 물론 관혼상제와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식은 다양하고 동작하나에서 염불 한 구절까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보기엔 일상적인 것 같지만, 목탁치고 염불하는데도 ‘도(道)’가 있는 것이다. 의식은 종교적 상징의 총체다.

그러나 불교 의식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침식되기도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의식이 전승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은 직접적인 전승 곧 도제식 교육에 의한 세습이다. 스승 앞에서 구음을 배우고 목탁이나 종 혹은 징을 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과거 불교의식은 도제식 교육에 의한 전승이 대부분이었다.

193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이 출현했다. 의식 집전이 절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경문의 내용에 있어서

도 각기 차이가 많아 의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발원에서 나온 것이 <석문의범>이다. 이 책은 그동안 불교의식의 가장 특정한 텍스트로 자리를 지켜 왔다. 그러나 내용상의 허점도 적지 않고, 책만으로 의식을 배우고 의미를



를 익히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반세기 가 넘도록 받아 온 지적이었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나 <승가의범>이 나왔다. <석문의범>의 허점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온 대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의식의 텍스트가 출현한 것이다. 조계종의 초대 어산장인 동주 스님(사진)이 17년간의 공력을 들여 완성한 의미 있는 불사다.

<승가의범>은 동주 스님 혼자 의적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관계자들이 수년 간 토론을 거듭하며 완성했다. 송암 벽승 스님 등 어산의 권위자들과 월은 우롱 고산 종진 도원 스님 등 대강백들이 부문별로 감수를 했다. 운문사 상주 영택 스님은 7년 동안 교정쇄를 붙들고 ‘정진’했다.

“글자 하나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원고를 만들고 토론하고 다시 교정을 하느라 17년의 세월이 하루 같이 흘러가 버렸다”는 동주 스님은 “여러 권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공통분모를 가려 내고 다시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정하는 동안

우리 불교의 의식이 이토록 체계 없이 전해져 왔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말했다.

일반 의식을 총망라한 <승가의범>은 의식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각주를 달았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른 경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초파일 봉축 법요식에서 행하는 ‘관불의식’과 불상을 소재하기에 앞서 행하는 ‘불상소제 의식’은 각종 의식을 참고하여 동주 스님이 창안한 것이다.

의식의 도제식 교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승가의범>은 흐트러진 의식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문의범>과 그 이전의 <작법귀감> <일용작법> 등 다양한 저본들을 우리시대에 맞추어 편찬한 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한문어에서 한글어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승가의범>이 출현한 것은, 한문 원본을 바르게 밝혀야 한글화 작업도 제대로 된다는 면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의식도 지극한 수행”이라는 동주 스님은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정한 계행 △경문을 외면서 그 뜻을 관하는 정진(誦文觀義) △사성(四聲)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제대로 익힌 송주 △수행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사 펴냄 | 6만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설레는 마음으로 화두 챙기되 고요히 쉬어라”



쉬고, 쉬고 또 쉬고
무여 스님 지음
새로운사람들 펴냄 | 1만3000원

“여유로울 때 자유로워진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듯이 한 가한 마음 속에는 대 자유인이 되는 선(禪)의 도리가 내포되어 있다. 본래 선 수행은 ‘망상과 분별심을 쉬는(休)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조사와 육조혜능 스님의 가르침 중에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쉬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屏息諸緣 一念不生)’고 한 가르침이 그것이다. 근대 중국 고승 허운(1840~1959) 대사는 ‘쉬이 곧 깨달음(歇即菩提)’이라고까지 말했다. ‘쉬이 곧 깨달음의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봉화 속서사 문수선원 조실 무여 스님이 펴낸 간화선 지침서 <쉬고, 쉬고 또 쉬고>는 비우고 쉬는 방화(放下)의 이치를 통해 분주한 현대인들을 대도의 길로 인도한다. 스

님은 ‘쉬’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첫번째 쉬는 일은 선(禪)에 들어가기 전, 생각을 쉬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쉬는 일은 화두에 집중한 의정을 일으켜서 온갖 번뇌 망상을 쉬는 일입니다. 그렇게 쉬고 쉬면 참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무여 스님은 참선의 목적은 깨달음이지만 선(禪)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고요히 깨어있는 집중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참선은 내 마음을 물론 가정과 직장생활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마음공부라는 것.

무여 스님은 이 책에서 화두의 의미와 공부법, 붓다의 호흡법 수행을 활용하는 법과 화두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극복하는 법, 참선수행의 부수적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선수행 과정에서 가질만한 의문을 두루 짚어주고 쉽고도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 장점이다. 참선 입문자에서부터 구심 수행자까지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간화선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속서사= (054)672-7579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정선	마음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	시유수
4	법문 스님의 죽은죽	법륜	정토
5	세어본 스님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오늘이 전부다	현진	클리어마인드
7	행복 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8	광명전진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9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10	인과경	현담	선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획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허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 전강 대선사 범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구감 범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범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채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比丘, 가섭상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우루빈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2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매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호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자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입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 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의 : 총무원실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람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생명 에너지를 글썽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배송비 2500원 (5000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직지점 “신도봉이매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